

0827(토) 에스겔 12-15장 특권은 없다!

에스겔은 무언극과 상징 행위들로 예언합니다.

앞으로 전개될 심판과 멸망의 고통, 그 처절함이

별다른 설명 없이도 생생히 전달되었습니다(4-5장, 12:1-20).

보는 이들은 그의 예언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(12:22,27).

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(13장).

그러나 그들은 에스겔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.

특히 에스겔이 성전 구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말하는 순간

예언의 출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(8:1).

장로들은 이미 이를 인지했거나 가담한 바 있었지만,

견습 제사장이 알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

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며

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(15장).

본래도 쓸모가 애매한데 불탄 포도나무가 무슨 소용일까요?

나무 자체의 신세도 그러 할진데 잘린 가지들 즉,

이미 포로 된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?

포로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녀 걱정을 했습니다*.

의인 몇을 봐서라도 구원해 달라 간청하고 싶겠지만(9:4, 창18:23-33 참고),

설사 엄청난 의인이라도 자기 생명만 건질 것입니다(14:14).

그 어떠한 특권도 없을 것이며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.

(7:3-4, 14:23) *14:16,18,20, 24:21,25

“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(12:25)”

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, 시드기야 왕의 운명(4:9-17, 12:12-14,18),

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(12:28).

나는 하나님 심판의 공정함을 깨닫습니까?

❶ 부모와 자녀, 그 누구의 의와 덕에 기댈 수 없음을 깨닫습니까?

❷ 특권이나 예외 없이 행위대로 심판받음을 깨닫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에스겔 12-15장